

전일동향	달러 매도물량 출회에... 1,336.50원에 마감
------	------------------------------

16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344.60원(15:30 기준) 대비 4.60원 하락한 1,340.0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외국계 기관이 쏟아낸 달러매도 물량과 약달러 흐름이 환율을 끌어내리며, 1,336.5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9.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42.9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40.00	1348.00	1328.90	1336.50	1342.40
	엔화	848.55	852.40	841.65	842.93	-
	유로화	1504.51	1511.17	1495.05	1496.8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8	-2.5	-6.3	-14.93
	결제환율(수입)	-0.18	-1.44	-4.46	-11.7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1,3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31.40, 15:30 기준) 대비 3.30원 상승한 1,333.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 상승 전망한다. 최근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며 글로벌 반도체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자금이 추가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며, 금일 환율은 추가 상방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동과 러시아 에너지 시설 피해로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도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역내 달러 매도세가 상단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점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0.00 ~ 1342.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04.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30원 ↑
	■ 美 다우지수 : 52002.41, -175.28p(-0.3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43.3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197 억원